

2024. 3. 25.(월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10:1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교통정책과장	이진구	2133-2210
교통수요관리팀장	김종민	2133-2224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서울시 '기후동행카드' 고양시 참여...지하철 우선 도입, 15만 통근자에 혜택

- 서울시, 인접 지자체 중 최대 인구·최다 통행 보유한 고양시와 광역교통 혁신 도모
- 25일(월) 오세훈 서울시장-이동환 고양시장 업무협약 체결, 수도권 시민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
- 지하철 3호선·경의중앙선·서해선 등 26개 역사 승하차 가능, 고양시 경유 서울 시내버스 20개 노선은 기 포함
- 오 시장, 수도권 교통 철학·이 시장, 광역교통망 구축 혁신·수도권 교통 발전 협력 지속

- 서울시는 3월 25일(월) 오전 10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‘서울시-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참석해 고양시의 ‘기후동행카드’ 참여를 확정 지으며,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.
- 이 자리에는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, 주시운 고양시 교통국장도 함께 참석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.

- 1기 신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로서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 지자체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, 오랫동안 수도권 공동 생활권을 밀접히 공유하며 광역교통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.
- 삼송·원흥·향동·덕은 등 잇단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양 도시를 오가는 출·퇴근자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, 이번 ‘기후동행카드’는 수도권 공동 발전 차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.
-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(대화~삼송), 경의중앙선 10개 역사(탄현~한국항공대), 서해선 6개 역사(일산~능곡) 등 총 26개 역사가 ‘기후동행카드’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.
- 현재 ‘기후동행카드’ 현 서비스 범위에 이미 774번 버스 등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0개 노선·348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, ‘기후동행카드’는 향후 양 도시를 통근·통학하는 15만 시민의 이동 편의를 혁신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.
 - 또한, 이번 협약은 고양시와 인접한 타 경기 북부 지자체와의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.
- 아울러 양 지자체는 이와 같은 성과를 시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. 고양시 지하철 26개 역사에 대한 서비스를 빠르면 상반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, 관련 협의 및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

- 또한 서울시는 해당 역사의 운영기관인 코레일과도 이미 협의에 착수했으며, 향후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.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이번 고양시와의 협약은 경기 북부 거주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협력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”며 “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수도권 시민이 ‘신개념 교통혁신’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